

성 김 주한 美대사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인터뷰

“日 군사력, 한국에 해 끼치지 않게 할 것”

성 김 주한 미국대사는 고향인 한국에 대해 무한한 애정을 표시하며 한·미 양국의 관계를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보였다.

그는 강렬한 인상과 달리 조용한 성품을 가진 듯 보였고 인터뷰 내내 신중한 태도로 답변에 임했다. 특히 다소 까다로운 질문에는 원론적 답변으로 피해가며 외교관으로서의 자세를 견지했다. 인터뷰는 지난 22일 오전 11시부터 1시간여 동안 주한미국대사관저 하비브하우스 접견실에서 진행됐으며 브렌트 바이어스 공보참사관과 바네사 젠지 부대변인이 배석했다.

한국지방신문협회 회원사와 가진 인터뷰 내용을 요약한다.

- 지난해 5월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한미관계가 더 호전되고 있다고 보는데 미국의 입장은.

▲ 양국관계를 반추해 볼 때 군사 동맹은 강력해 졌고 교역관계도 성장해 양국관계가 진정으로 세계화되고 있다. 앞으로 한반도 이외의 지역에서도 협력을 확대하도록 양국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 미국도 한국의 오랜 동맹이지만 중국 역시 한국의 오랜 이웃으로 한·중간 경제적 파트너십이 필요하다. 중국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상황인데 미국의 입장은.

▲ 한국과 중국의 좋은 관계에 대해 우리는 환영한다. 한국이 민주적으로 잘 발전하고 법치와 인권을 존중하는 나라임이 때문에 한국과 중요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중국에서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북한의 도전에 한국과 미국이 중국의 협력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 자체가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 일본 역시 중요한 파트너이지만 한일관계가 좋지 않은데 한미 동맹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나.

▲ 우리는 한국이 가지고 있는 아픈 기억을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회에 걸쳐서 ‘일본이 이를 적절하게 대처할 것을 바란다’고 말해왔다. 동시에 한일관계가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관계로 발전하는 것을 이 지역(한·미·일)에서 중요하다고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3자간에 강력한 조율과 협력은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도 무척 중요하고 계속 믿고 있다.

- 일본 정부의 군사력 강화와 야스쿠니 신사참배 등으로 주변국과 불편한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의 태도가 이해하는 지적이 있다.

▲ (고개를 저으면서) 미·일동맹이 강화된다고 해서 한국과의 관계에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니다. 일본의 방위 능력에 대해 논의하는



한미, 北 도전에 中 협력 얻는게 중요

北 비핵화 없인 북미관계 진전 없어

전시작전통제권 연기 최선 방안 찾겠다

것 알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미·일동맹 차원이다. 한국이나, 한·일관계에 해가 될만한 그런 일을 이 벌여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사실 이런 논의는 한국에 혜택이 될 것이다.

- 방위분담금에 대한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한국 국회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 투명성의 중요성을 잘 이해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몇몇 협정 역시 투명성을 높이는 측면에 매우 긍정적인 협정이었다.

- 방위분담금도 인상했는데, 이번에는 미

국에서 원자력협력 협정에 통 크게 전향적

으로 양보할 생각은 없는가.

▲ 우리는 한국에 3가지 필요를 적절하게 충족시키는 협정을 타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한국에 3가지 필요한 것은 사용 후 연료관리 안정적인 연료 공급, 그리고 국제 원자력시장에서 한국이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어렵고 복잡하지만 한국의 필요와 미국의 비핵화 필요를 충족시키는 협정으로 타결될 것으로 믿는다.

- 전시작전통제권을 2019년 이후로 연기 하자는 한국 측 제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국의 입장은.

▲ (자신감 있다는 듯이) 사실은 이번 주

워싱턴 DC에서 회의가 열리는데, 우리의 최우선 (고려) 순위는 가장 강력한 연합 억지력을 유지시키면서,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남북 현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한 걱정이다. 현 사태에 대한 미국의 인식은.

▲ 북한에서 발생하는 상황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하고 있고 한국 정부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 우리가 함께 가장 강력한 연합 억지력을 유지하면서 정책 조율을 지속적으로 한다면 북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

- 북한이 핵을 미끼로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려는 전략도 있다는데 미국의 입장은.

▲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명백히 했다. 한국은 물론이고 중국과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에 진전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을 찾기 위해 조율 중에 있다. 6자회담이든, 남북관계든, 북미관계든, 결국 북한이 비핵화를 위해 일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것이 관건이다.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 솔직하고 진지한 의지를 갖지 않고, 6자회담이나 다른 회담을 통해 약속한 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상 (북미 관계) 진전은 없다.

- 한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가입하면 어떤 도움이 되고, 미국은 한국의 참여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 미국은 한국의 TPP 참여에 대한 관심을 매우 환영하고 자연스런 파트너가 될 것이다. TPP에도 많이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한국 역시 TPP에 가입하면 얻을 것이 많다. 한미FTA 체결 이후 완전한 이행으로 옮겨 가면서 남아 있는 협약들을 잘 해결해 가면 미국이 한국의 가입에 강력한 지지를 보낼 것이다.

- 한국인 유학비자 거부가 심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 한국 유학생들이 미국에서 공부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기쁘게 생각한다. (국민) 1인당 유학생 수지를 따져 볼 때 한국이 가장 많은 수다. 우리는 이러한 추세를 원하고 있다. 작년에 2년 7000명 이상 비자를 발급하는데 있어 규정은 변하지 않았다. 앞으로도 우리는 우수한 학생들이 미국 오는 것을 환영할 것이다.

- 미국 국가안보국(NSA)은 도청을 계속 할 것인가.

▲ 매우 민감한 문제다. 오바마 대통령은 NSA에 대해 중요한 결정을 내렸고, 또한 개혁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박지경기자

/사진=경인일보 김종택 기자

다보스서 창조경제 설명…‘코리아 세일즈’

朴대통령 귀국…해외순방 성과는



에서는 대형 인프라 건설 계약을 따내지는 못 했지만 총 12건의 협정 및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한후 창조경제를 실현할 기반을 다지는 성과를 얻어냈다고 평가한다.

대표적인 것은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글로벌 기술인력양성 MOU이다.

◇다보스서 창조경제 설명… 글로벌 CEO 상대 ‘코리아 세일즈’=이번 순방의 마지막 일정이던 다보스포럼에 참가한 박 대통령은 개막연설을 통해 전세계에서 모인 100여 개국의 정·재계 및 학계 리더 2580여명에게 자신의 핵심 경제기조인 창조경제를 설명하는데 집중했다.

또 전경련이 주최한 ‘한국의 밤’ 행사 참석과 시스코·립컬·아呸코·지멘스 등 세계 주요 글로벌 기업 CEO(최고경영자)들과의 면담과 회동, 한국이 투자하기 좋은 나라라는 점을 알리는데 주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교황 8월 방한 가능성”

교황청, 亞청년대회 초청 받아



정인 10월이나 제6회 아시아청년대회가 열리는 8월 중 하나로 예측한 바 있다.

아시아청년대회는 오는 8월 13~17일 대전교구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국천주교 주교회의는 교황청에 방한을 신청했고 실제 교황의 방문 시기를 ‘윤지총 바오로와 동료 123위’의 시복식이 열릴 예

정이다.

한국천주교 주교회의는 외신 보도에 관해 “교황의 방한을 요청했고 답변을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밝힌 지 석 달이 넘었다”면서 “이전과 상황이 달라진 게 전혀 없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한국을 방문한 교황은 요한 바오로 2세가 유일했다.

/연합뉴스

광주시, 국·과장급 22명 승진 인사

광주시가 올 상반기 국·과장급 22명에 대한 승진인사를 단행했다.

광주시는 2014년도 상반기 명예퇴직과 공로연수, U대회조직위 조직개편 등으로 인사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국장급(3급) 6명과 과장급(4급) 16명 등 22명에 대해 23 일자로 승진·의결했다고 밝혔다.

국장급 승진자는 윤기봉 투자유치지원관, 이연 시민협력관, 정평호 동구 부구청장, 염병열 총무담당관, 이정삼 환경정책과장, 차영규 경기시설과장이다.

과장급 승진자는 ▲민병인(U대회지원과) ▲송승종(대변인실) ▲이병혁(도시계획과) ▲이효순(교통정책과) ▲조윤식(부자치지원관실) ▲차민수(총무과) ▲최희남(문화사업과) ▲황성권(사회복지과) ▲조정희(시립도서관) ▲이영우(생명농업과) ▲김갑수(도시계획과) ▲박광원(감사관실) ▲이순남(생태하천수질과) ▲임종성(교통정책과) ▲박산(문화수도정책관실) ▲송호오(토지정보과) 등이다.

/총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신축원룸전문(전대1분)

★전대상대 1분

등기완료, 공실없음 월수익 420만원 5000수익 최고위치, 전면대리석 벽돌시공 매가 6억3천 (보증금 3천, 응 1억)

★전대용봉지구모아미래도APT코너

신축 4층 룸 19개(1층 상가, 4층 주택)

월수익 850만(1년 1억원 수익) 매가 12억 (응 3억, 보 1억)

전대정문 원룸

룸 15개 월수익 500, 매가 6억3

전대예술대 2분 코너앞

룸 13개 (4층 고급주택 40평 1개) 매가 7억8천

즉시입주가능 최고위치 월수익 455만원(4층주택 사용가)

★수완지구상가

1층매매(17.5평) 3억5천 1층임대 (18평) 보2천 월110만

3층매매(85평) 3억2천 모아엘가 상가 3층

3층매매(62평) 2억8천 세계로 병원 대로면

쌍촌동운천역1분 원룸형 주택 11평 매3500/13평 매4500

신한공인중개사 ☎010-6670-9800

경매전문

경매 투자 하실 분!

(공동투자가능)

(상가, APT, 원룸, 토지, 균생, 기타)

권리분석·입찰 매매·임대·자금

처음부터 끝까지

컨설팅 해드립니다.

◎경매 지원 구함◎

기죽처럼 함께 하실 분

주)대신경매 ☎062-527-7600

금당공인중개사

매매·교환·설계·시공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투자·감정가 이하

- 회순을 대로변 149평 은행 2억 감정 3억6천 매도2억9천
- 매월동 저수지에서 대동고·건강랜드 방향 2차선 도로 자연 녹지 5484㎡(1661) 교환·분할 매매 가능 평당 200만원
- 금마, 지하철 상촌역 사거리 대로변 준지거 377㎡(111평) 병원·사옥·학원·자동차 정비시설 등 적합 7억6천
- 쌍촌동 2층 주거지 674㎡(204) 디카구, 디세마 적합 매입가에 매도 3억1500만원 투자에도 적합
- 동명동 5층건물 대지318㎡(96) 건폐228평 상가와 주택 원룸 15개 투룸3개 보증금 1억2천에 월 500만 수익 9억6천
- 식당건물 금마 금남로3가 부근 소방도로 절 대지 149평 건폐 438평 은행 6억4천 전세 8천에 월 440선 법인이전 7억6천
- 신죽 쓰리풀 건물 북구 우산동 대지 516㎡ 12세대 8억9천
- 나주시 봉황면 소재지 대지 119평 주택 30평 5천만원
- 모텔, 전복, 부인군 변산면 대지1677㎡(507) 건폐 422평 객실 48실 대출 6억2천 매도 8억3천
- 시찰적합 건물 헐평군 월아연 땅 2657㎡(804) 건물 2동 57평 은행 2억 기도원 활용 있는 산이 있는 주택과 교환가능 5억
- 전남대앞 신안동 4거리 상업지 대지 446㎡(135) 4층 건물 322평 은행 3억 매도 7억2천
- 북구 우산동 상가와 원룸건물 대지331㎡ 건물 1366㎡(413평) 은행 6억2천 보증금 8천선 월900만원 매도9억6천
- 전원주택지 청풍동 777㎡(235) 1억5천
- 북동 삼업지 992㎡(300) 오피스텔, 생활주택 등 디非要 8억

매도·임대

- 쌍촌동에 신축중인 가도생활주택 2차 건물 호텔급 시설의 풀옵션 9평형 주택. 입주는 1월 입대는 전세1000에 월40선. 매매는 6300만원(대출 3천만원 포함) 투자자는 여러개를 매입해서 임대하면 수익성이 매우 좋음.

☎ 문의 222-4994, 010-2632-5659

쌍촌동 (구) 등기소 자리, 가도 생활주택 전시관

금매매